은퇴선수협회 '최고의 선수상'·KBO리그 정규시즌 'MVP'·리얼 글러브 '올해의 선수상'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스포츠동아 제공〉

〈일간스포츠 제공〉

일구상 '최고 타자상'·동아스포츠대상 야구 종목 '올해의 선수상'·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상복' 터진 김도영, 연말 트로피 독식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슈퍼스타' 김도영이 또 한번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김도영은 3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 임페리얼홀에서 열린 '2024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상금 1천만원과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타이거즈 선수가 조아제약 프로야구 시상식 대상을 받은 건 2017년 양현종 이후 7년 만이자 역대 네 번째이며, 타자로는 2009년 김상현 이후 무려 15년 만이다.

뿐만 아니라 김도영은 팬캐스트 셀럽 투표로 선정된 인기상과 올해의 팬덤 플레이어상까지 받으며, 대상 포함 3관왕으로 이날 시상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그의 수상 행보는 이번만이 아니다.

그는 올해 이미 은퇴선수협회가 선정한 '최고의 선수상', '2024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최고 타자상, 'KBO리그 최우수선수(MVP)', '리얼 글러브 어워드(REAL GLOVE AWARD) 올해의 선수상과 Fan's Choice 플레이어상', '2024 동아스포츠대상 수상'을 휩쓸며, 리그 안팎에서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13일 예정된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도 강력한 후보로 꼽히는 만큼, 김도영의 트로피 행진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김도영이 보여준 임팩트는 가히 '역대급'이다.

정규시즌 141경기에 나서며 장타율(0.647)과 득점(143) 부문 타격 2관왕에 올라 리그 유일 '다관왕'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타율(0.347) 3위,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1.067) 1위, 루타(352) 1위, 3루타(10) 1위, 홈런(38) 2위, 안타(189) 3위 등 빼어난 공격력을 과시하며 정규리그 우승과 팀 통산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견인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역대 5번째 전반기 20-20 클럽, 역대 2번째 내추럴 사이클링히트, 역대 최연소·최소 경기 30-30 클럽 가입 등 KBO 역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겨 올 시즌을 그의 무대로 바꿔놨다.

시즌 뒤 열린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선 만루 홈런 포함 타율 0.412(17타수 7안타) 3홈런 10타점 활약를 펼쳤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KIA 마무리 투수 정해영은 최고구원투수상을 수상했다.

올 시즌 31세이브를 수확한 정해영은 지난 1998년 임창용 이후 무려 26년 만에 '타이거즈 구원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 밖에, 감독상은 KIA를 통합 우승으로 이끈 이범호 감독, 통합 우승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KIA 구단이 프런트상을 품에 안았다.

이른바 '삐끼삐끼' 댄스로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KIA 응원단은 SNS 핫이슈상을 받았다.

조아제약㈜과 일간스포츠가 공동 제정한 이번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은 총 15개 부문을 시상하는 프로야구 최고의 상이다. 국내 유일의 제약사 주최 야구 시상식으로 2009년 시작돼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했다.

/주홍철 기자

2008 베이징 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 이용대

BWF '명예의 전당' 입성

한국 선수 10번째 영예

이용대 〈요넥스 제공〉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요넥스)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BWF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배드민턴의 전설 이용대와 천룽(중국)이 명예의 전당 구성원으로 뽑혔다"고 발표했다.

이용대와 천룽은 월드투어 파이널 개막 이틀 전인 9일 열리는 BWF 행사에서 명예의 전당에 입회한다.

BWF는 "역대 가장 재능 있는 복식 선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용대는 다재다능한 모습으로 매력을 뽐내 팬들을 사로잡았다"며 "19세의 나이로 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을 획득했고, 46개의 슈퍼시리즈·월드 투어 타이틀을 땄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용대는 복식 경기를 재정의한 선수"라며 "놀라운 수비력과 네트 앞에서 기교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용대는 박주봉(2001년), 김문수(2002년), 정명희, 정소영(이상 2003년), 김동문, 라경민, 길영아(이상 2009년), 하태권(2012년), 방수현(2018년)에 이어 10번째로 BWF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한국인이 된다.

1988년생 이용대는 처음 출전한 올림픽인 2008 베이징 대회에서 이효정과 함께 혼합복식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최고의 배드민턴 스타로 떠올랐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는 고(故) 정재성과 호흡을 맞춰 남자복식 동메달을 획득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남자복식에도 출전했지만, 아쉽게 메달 수확에 실패했다.

이후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한 이용대는 소속팀 요넥스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임직원들이 지난 2일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직장인 정신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참여, 검진을 받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건강한 정신, 삶의 질 높인다"

광주시체육회, 임직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프로그램 진행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인 정신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지난달 13일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척도 검사가 진행됐다.

체육회 임직원들은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과 자기 이해, 자기 효능감 향상, 심리적 소진(번아웃) 예방, 삶과 일의 균형 유지 등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직원들은 정신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스스로를 돌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검진 대상을 확대해 지도자, 선수, 동호인 및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신민준 상대는 셰얼하오

오늘 농심배 2차전 9局

중국의 세 번째 주자 셰얼하오 9단이 농심신라면배에서 2연승을 달렸다.

셰얼하오는 3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린 제26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2차전(5-9국) 8국에서 일본의 네 번째 주자 이치리키 료 9단에게 143수 만에 불계승했다.

이날 흑을 잡은 셰얼하오는 초반부터 발 빠르게 실리를 확보한 뒤 백 세력을 여유 있게 삭감하며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2연승을 거둔 셰얼하오는 4일 열리는 2차전 마지막 대국인 9국에서 한국의 신민준 9단과 맞붙게 됐다.

신민준과 셰얼하오의 상대 전적은 4승 4패로 호각을 이루고 있다.

셰얼하오는 지난 25회 대회에서도 파죽의 7연승을 달리다 신진서 9단에게 패한 바 있다.

중국은 부산에서 열린 2차전에서 셰얼하오의 활약 속에 딩하오·리쉬안하오 9단 등 3명이 생존했다.

한국도 신진서·박정환·신민준 9단이 3명이 살아남아 중국과 우승을 다투게 됐다.

반면 응씨배 우승자인 이치리키마저 패한 일본은 이번 농심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4명이 탈락했다.

시바노 도라마루 9단 1명만 남은 일본은 한중일 우승 경쟁에서 가장 불리해졌다.

/연합뉴스

전남도장애인체육회·장성군, 내년 장애인체전 성공개최 준비 '박차'

지난 2일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장성군, 종목 경기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군 남면 문화센터에서 열린 제33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 합동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장성 장애인체전 역대 최고 대회 이루자"

전남장애인체전 최초 야외 개회식…전남도장애인체육회·장성군 합동회의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내년 장성에서 열리는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일 장성군 남면 문화센터에서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장성군, 경기단체 등 4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고 개최 계획, 참가요강 협의, 기관별 업무분장 등을 논의했다.

이어 경기장별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주차장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점검하고, 21개 종목 경기단체에서는 현장 실사를 통해 적합한 체육시설 임시 배정을 마쳤다.

앞서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장성군과 전남체전TF팀을 구성하고 대회 일자 조기 확정, 상징물 및 구호 승인, '성장 장성'을 반영한 개·폐회식 공개행사 연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정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전남장애인체전 최초로 야외에서 개회식이 진행되는 만큼 비장애인체전에 버금가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장애인체육 경쟁력을 한층 발전시키는 성공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장성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33회 전남장애인체전은 게이트볼, 골볼, 론볼 등 21개 종목에 1만5천여명의 선수단이 함께 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토트넘, 5부 탬워스와 FA컵…양민혁 출격 가능성

손흥민의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토트넘 홋스퍼가 FA컵 3라운드(64강)에서 '5부 리그' 팀을 상대하는 행운을 잡았다.

3일 열린 2024-2025시즌 FA컵 3라운드 대진 추첨 결과 토트넘은 5부 리그의 탬워스를 상대하게 됐다.

이 경기는 탬워스 홈에서 열린다.

탬워스는 잉글랜드 축구 리그 체계의 5번째에 위치한 내셔널리그에서 경쟁하는 팀이다.

내셔널리그는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리그 중 최하단에 있으며 프로선수와 세미 프로 선수가 섞여 있다.

탬워스는 지난 시즌만 해도 6부 리그에 있다가 6부 북부 리그에서 1위를 해 5부로 승격했다.

3라운드 경기는 1월9-13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진다.

토트넘에 따르면 탬워스와의 경기는 11일이나 12일 진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토트넘이 어린 선수들이나 후보 선수들로 탬워스전에 임한다면, 곧 토트넘에 입단하는 양민혁(강원)이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

양민혁은 2024시즌 K리그1에서 무려 12골 6도움을 올리며 강원의 준우승에 기여하고 고등학생 신분으로 '영플레이어상'을 거머쥔 '슈퍼 루키'다.

이미 지난 7월 토트넘과 계약한 양민혁은 오는 16일 출국해 '새 팀'에 합류한다.

/연합뉴스